시 론

법보다 환경보존 우선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0월 23일 내린 판결은 자연환경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린다. 이 판결은 보수적인 법이론은 차치하고라도 자연생태계를 '개인재산'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였다.

양양발전소 계획 '마찰'

1995년 7월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원에 5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백만kw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가 승인하자 1996년 1월 수몰지역 주민 5명과 환경단체 회원 1백여명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근 남대천 점봉산 일대의 희귀어종이 몰살하는 등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실장〉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산업부의 승인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자 및 위법행위가 없었던 만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민 5명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원고로 참가한 환경단체회원들은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판결은 '정당한 법의 절차(적법절차)' 원리를 왜곡함으로써 법이념상의 파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식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퇴색시켰다.

현재의 법을 형식논리대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말할 수 없다. 법에 정한 절차(법정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절차적 정당성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실체적 정당성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법 내용 자체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원이 심리기준으로 삼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정의의 원리에 반한다. 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실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평가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평가를 맡기는 모순을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내려지면 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사업자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는가? 사업자 아닌 평가대행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돈 줄이다. 평가대행기관으로서는 돈을 내는 사업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법정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하자가 없다"고 단정함은 정의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따라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자체를 심사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이 객관적 수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책무가 있다. 이 건 사안에서 원고들이 평가의 충분성을 다투는 만큼 법원은 '평가의 수준'에 관한 실질심사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

환경소송에서 '주거'요건은 의미가 없다. 자연환경은, 공공신탁의 이론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만의 재산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려주는 신탁자에 불과하다. 환경선진국들은 아마존 밀림의 파괴까지 금지시키려 하고 한국은 중국의 대기오염까지 시비하는 판국에 소송 당사자가 분쟁 대상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자격을 부인함은 환경분쟁의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자연환경의 주인은 국민

환경법의 흐름도 당사자 적격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7년 8월에 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로 하여금 분쟁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이 계속 절차적 적법절차 논리에 따라 형식적 합법성만을 따지고 당사자 적격범위를 좁게 새긴다면 인류미래는 어둡다. 스웨덴의 국가환경보호 허가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제약장치들이 마련될 때까지 자연환경의 보전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된다.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열린마당

제2 석굴암 조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의 훼손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가 10월20일 석굴암의 영구 보존을 위해 제2 석굴암을 경내에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조석굴암이 석굴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석굴암 보존과 참배, 관람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등 불교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국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2 석굴암 조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모조품에 참배발상 '아연'

법달 〈석굴암 암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성보를 똑같이 모조로 세워 참배케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도 제2석굴암 조성이 추진됐었다. 그때 월산 조실스님께서 철저하게 반대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됐던 일도 있다. 석굴암 부처님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은 실제 석굴암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다고 해서 모조품을 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를 보면 더욱 찬찬히 살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석굴암의 마모현상으로 꼭 제2의 석굴암이 필요하다면 방대한 연구자료집을 제작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섣부른 발상 아닐까 우려

황수영 〈前 동국대 총장〉

석굴암은 분명 신라의 토함산을 배경으로 한 영구불멸의 걸작품이다. 많은 분들이 석굴암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사업에는 비중과 완급, 선후를 가려서 적절한 시책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제2석굴암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은 섣부른 행동이 아닐까하는 회의를 들게 한다. 현재 우리의 기술이나 재력으로 석굴암을 복원하거나 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석굴암의 현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 보존을 위한 잠정적 조치, 아울러 앞으로의 근본적인 수리대책이 신중히 구상되어야 한다. 선대(先代)의 석굴암 경영의 정신적 조형적 양면에 대해 우리의 용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한 해명이 우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훌륭해도 접근 어려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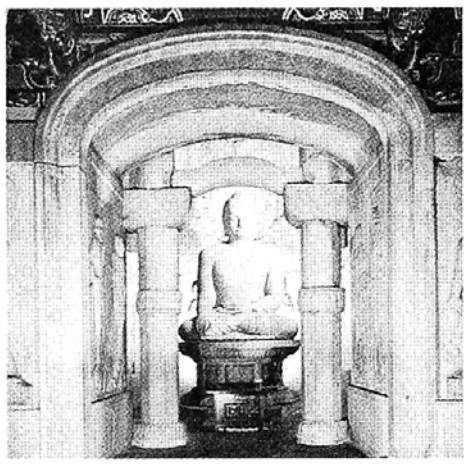
김동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석굴암은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세계최고의 건축이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2석굴암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석굴암의 예술적 종교적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감응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2석굴암 조성에 대해 염려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면과 모형으로 보여주고, 전시실도 만들어서 우리불교예술의 우수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제2석굴암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밀조사 거쳐 조성해야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날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국보중의 국보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제2석굴암 조성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우선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버리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밀조사와 적절한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석굴 전체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 석굴암 인근의 비슷한 지형에 새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석굴암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불평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석굴암 내부를 감상하거나 참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석굴암을 조성해 누구나 직접 둘러보고 마음껏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굴암의 영구보존과 참배를 위한 제2석굴암 조성이 제기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석굴암 내부.

천년세월 모방 가능한가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석굴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를,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정각의 내용을 건축과 조각으로 구상화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적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또 종합예술이라는 차원에서 건축 조각 공예 종교 정치 천문학 기하학 풍수지리 물리학 화학 등이 모두 연관된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석굴암을 보존이라는 이름하에 참배와 관람을 금지시키고 제2석굴암을 조성해 참배 관람케 한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1천년이 넘는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지켜온 석굴암을 인위적인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제2석굴암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있는자리 그대로의 가치

황상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2석굴암 조성에 찬성할 수 없다. 기존의 석굴암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면 그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석굴암의 훼손 상태는 당장 관람과 참배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석굴암 자체 조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들과 관람객들에게 석굴암 모형에 대한 참배와 관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석굴암 같은 참배의 대상은 일반 조형물과 달리 원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원래의 석굴암을 놔두고 어느 누가 모형에다 참배를 하고 싶겠는가. 보존상의 문제 때문이라면 보다 효율적인 보존 관리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자료관 필요…참배 곤란

안장헌 〈신구전문대 교수 · 사진작가〉

석굴암을 직접 보기위해 예산과 시간을 들여 다녀온 사람들의 적지않은 수가 아쉬움을 표한다. 그것은 유리벽 안의 부처님과 십대제자들을 뵙고 와야하며, 줄이은 관람객들로 인해 제대로 예배하고 살피기에는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진작가들이나 예술하는 이들이 석굴암을 소재로 작품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석굴암 바로 옆에 석굴암을 살필 수 있는 축소 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바로 자료관이다. 이는 참배건 관광이건 일부러 마음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는 물론 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도 성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석굴암이 아닌 곳에 참배도 하고 관광도 할수 있는, 같은 석굴암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세계유산의 홍보 한 방편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홍보부장〉

세계유산인 석굴암의 영구보존 방법중의 하나가 제2석굴암의 조성이다. 물론 '가짜' 석굴암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석굴암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17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라스코 석굴벽화의 보존을 위해 모형 벽화를 그려놓고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람객의 반발도 있었지만, 프랑스가 석굴벽화의 관람 여건 개선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반발을 호평으로 바꾸어 놓았다. 라스코 석굴벽화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제2석굴암의 상징적인 종교 · 문화적 가치는 오직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석굴암이 조성되면 제2석굴암-종교문화센터라고 부르고 싶다. 스님들이 일반인들에게 석굴암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토함산 어우러질때 진가

최은미 〈동국대 사학과 탑상연구회〉

토함산에 자리한 석굴암은 종교와 과학이 일치돼 조성된 석굴사원이다. 석굴암은 더 거론할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만큼 지금 제대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또한 크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주는 의미까지도 지금은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굴암의 맛이라고 하면 토함산을 오를 때까지의 이끌림과 석굴암에서 풍겨지는 오묘한 느낌, 그리고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상태일 것이다. 불국사 경내에 제2 석굴암을 복원시키는 그 많은 시간과 재력이면 지금 토함산 꼭대기에 있는 단 하나의 석굴암을 어떻게 더 잘 보존하고 개방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玉혼합원사 · 건강防災服

항균성 99.9%
음이온발생 54.8PPM
젊음유지
건강회복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쭉 감싸 주는 것입니다.

중국 河北省 馮城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窮侯의 金縷玉衣 신장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가 탄력이 있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ilian+BIO=건강신물질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芳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여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